12월 기도제목

♡ 하나님의 긍휼 하심과 임재 하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만족의 삶이 되도록

♡ Pépé 유치원과 사랑마을 사역 가운데 사역자들의 협력과 필요가 하나님의 인도 하심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 부르도저로 남은 땅 다듬는 일과 축대 쌓는 일이 마무리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터가 되도록

♡ 3주간의 브라질 방문 동안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도전과 위로와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 올 한 해도 같은 마음으로 섬겨 주시며 교회건축의 대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 주신 동역자님들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까보베르데 국가 기도제목

* 최악의 가뭄으로 인하여 까보베르데인들의 주식인 옥수수를 100% 전량 수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서민들의 삶을 피폐케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늘어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 중국의 경제 지원으로 시작된 Casino로 인한 Praia에 일어나고 있는 건축 붐이 까보베르데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을 외면하고 중국 정부의 이득과 자신들의 개인 주머니를 채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근절이 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전 정권의 Catholicism의 법이 만들어 낸 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의 수가 3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법을 폐지해 달라고 개신교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현 정권에 요구하였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속히 폐지되어 까보베르데에 개신교 교회가 곳곳에 들어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서부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 까보베르데

조 남홍, 연섭 선교사 입니다.